

- 주요 뉴스: 중국, '26.1월부터 3년간 일부 소고기 수입에 추가 관세 55% 부과
 - 멕시코, 1월부터 일부 식품에 관세 재부과 계획
 - 중국, 12월 제조업 PMI 양호. 시진핑 주석은 '25년 성장 목표 달성 선언
 -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치 하회. 다만, 고용 불확실성은 상존
- 국제금융시장: 기술주 약세, AI 붐에 대한 신중론 지속 등

주가 하락[-0.74%], 달러화 상승[+0.03%],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 '25년 연간으로는 17%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소폭 하락 불구,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
 - 환율: 달러화지수는 소폭 상승. 다만, 금리 인하, 관세 등으로 연간 약세
유로화는 -0.02%, 엔화는 -0.19%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bp 상승.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 영향
독일은 휴장, 영국은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39.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1.0원. 0.14% 상승). 한국 CDS 보합

		12/31일	12/30일	전일대비			12/31일	12/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45.5	6,896.2	-0.74%	국채 금리 10y	미국	4.17%	4.12%	+5bp
	유럽	592.19	592.78	-0.10%		독일	휴장	2.86%	-
	중국	3,968.8	3,965.1	+0.09%		영국	4.48%	4.50%	-2bp
	일본	휴장	50,339	-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휴장	4,214.2	-		중국	44bp	44bp	0bp
환율	달러지수	98.27	98.24	+0.03%	위험 지표	EMBI+	-	271	-
	유로화	1.1746	1.1748	-0.02%		VIX	14.95	14.33	+4.33%
	엔화	156.71	156.41	-0.19%		WTI유	57.45	57.95	-0.86%
	위안화	6.9890	6.9959	+0.10%	원자재	구리	569.5	578.2	-1.50%
	원화	휴장	1,439.0	-		금	4,316.5	4,339.5	-0.5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중국, '26.1월부터 3년간 일부 소고기 수입에 추가 관세 55% 부과

- 중국 상무부는 주요 소고기 수입국들에 대해 국가별로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이번 수입제한 조치의 목적이 자국 산업 보호에 있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
- 수입 쿼터는 '26년 총 269만톤(브라질 110만톤, 아르헨티나 51만톤, 우르과이 32만톤 등)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27년 274.2만톤 → '28년 279.7만톤)
- 대중_{對中} 소고기 수출 비중이 큰 브라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 브라질 냉장육 가공업체 협회는 '26년 최대 \$30억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 한편, 동 조치로 소고기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세가 완화되면서 중국 외 지역의 소비자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멕시코, 1월부터 일부 식품에 관세 재부과 계획

- 멕시코 대통령실은 1.1일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를 포함한 여러 식품들에 대해 '22년부터 면제해 온 관세를 재도입할 계획을 발표.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1,400여개 제품군에 대해 5~50% 사이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
- 동 조치는 Sheinbaum 대통령이 추진하는 'Plan Mexico'의 일환이며, 미국의 대중 무역 장벽 강화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성격이라는 평가. 올해 계약을 체결한 일부 수입업자들의 경우, 전환 기간이 적용되어 '27년 초까지는 관세 면제 가능

■ 중국, 12월 제조업 PMI 양호, 시진핑 주석은 '25년 성장 목표 달성을 선언

-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는 50.1로 전월 49.2 대비 0.9pt 상승하며 8개월간 이어진 위축 국면이 종료되었음을 시사. 이번 지표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의 경기부양을 시행하지 않은 결정을 일부 정당화
- 한편 시진핑 주석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25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5%에 이를 것으로 예상.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는 구체적 수치 없이 중국이 경제 및 발전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

■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하회. 다만, 고용 불확실성은 상존

- 노동부에 따르면 '25년 마지막 주(~12.27일)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9만건으로 전주 대비 1.6만건 감소하며 전문가 전망치(22만건)를 하회. '24년 초 이후 해당 지표가 20만건을 하회한 경우는 소수
-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고용 시장 개선의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 연말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크리스마스 전후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것도 결과에 영향. '26년 고용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

■ 싱가포르, '25년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 '26년 하방위험에 유의

- 싱가포르 Lawrence Wong 총리는 '25년 자국 경제가 AI 관련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요 확대, 예상보다 낮은 미국의 수입 관세 등에 힘입어 4.8% 성장했다고 설명. 다만, '26년에는 성장세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
- 싱가포르 수출 및 고용의 핵심축인 의약품, 반도체 부문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전략의 마련 필요성을 강조

■ 국제 유가, '26년 공급 과잉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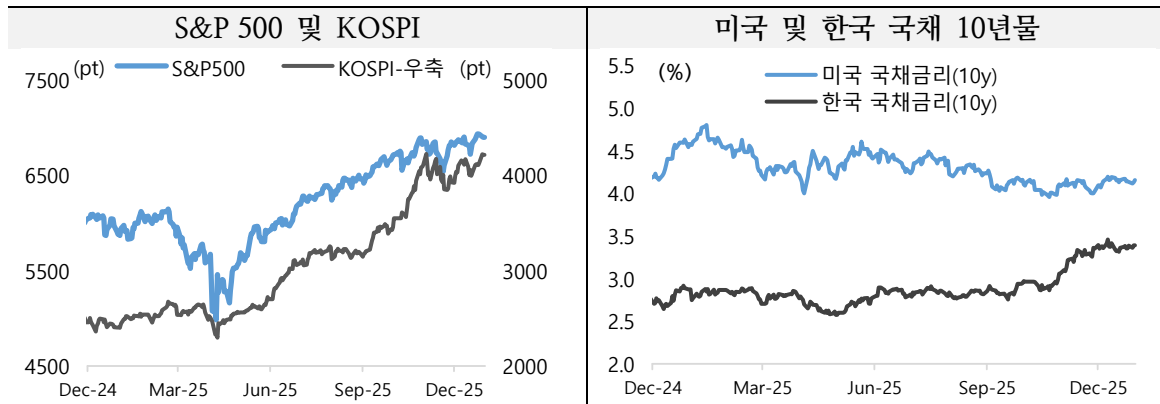
- '25년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위험과 지속적인 공급량 증가로 '20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하락(WTI -20%). 국제에너지기구_{IEA}와 미국 정부는 '25년 원유 생산량이 소비량을 하루 200만 배럴 가량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26년 공급 과잉 심화를 예상
- 트레이더들은 단기적으로 주말에 예정된 OPEC+ 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산유국 대상 정책 등에 주목. 다만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유가 향방을 지배
- Kotak Securities의 애널리스트는 非OPEC 국가들의 원유 생산이 불균형한 수요를 웃돌면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유가는 배럴당 \$50~70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 BNP Paribas의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브렌트유 가격이 '26.1분기 배럴당 \$55까지 하락한 이후 공급 정상화, 수요 유지 등에 힘입어 \$60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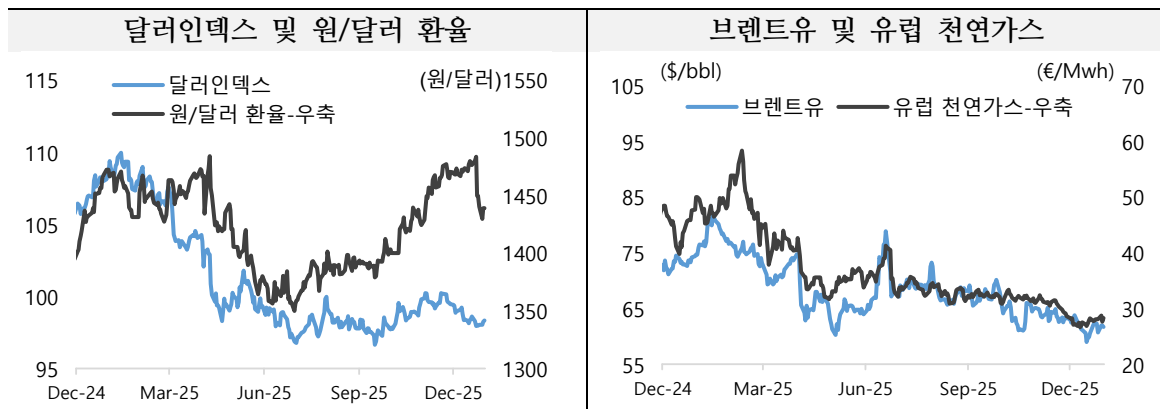
■ 주요 경제 이벤트(1/1일 현지시각 기준)

- 한국 1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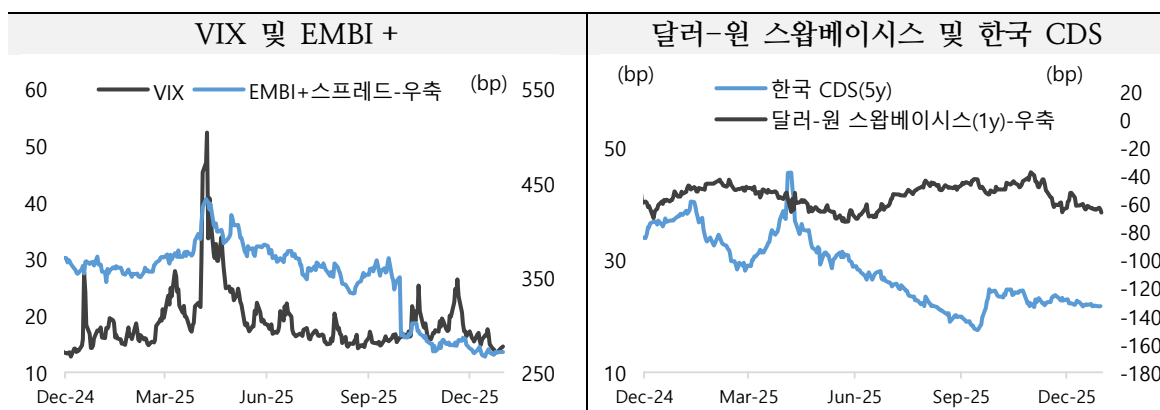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Bloomberg



자료:Bloomberg



자료: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6, E-mail wjhwang@kcif.or.kr